

이오플로우, ECO-이오파치 환경보호 캠페인 진행... ESG 경영에 동참

- ▶ 환경보호 일환으로 이오파치 제품 자체 수거해 회사에서 분리와 폐기
- ▶ 수거 적립금은 당뇨인을 위한 단체에 기부... 적극 참여 독려를 위한 활성화 이벤트 전개

[2021-11-05] 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가 ESG 활동의 일환으로 이오파치 제품을 수거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사용한 패치를 수거하여 환경규제에 맞는 분리 및 폐기를 진행하는 ECO-이오파치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직 국내에 의료기기 폐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지만 이를 수거하여 분리 및 폐기를 진행함으로써 환경보호를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사용한 이오파치를 모아 이오플로우 환경보호팀으로 착불로 보내면 된다. 참여방법은 이오플로우 홈페이지(www.eoflow.com) 또는 온라인 교육센터(www.eopatch.com) 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오플로우는 수거되는 이오파치 한 개당 500원씩 적립하며, 패치가 만 개가 모일 때마다 참여한 고객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적립금을 당뇨인을 위한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을 선정하여 특별한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오플로우 마케팅본부 서종욱 본부장은 "이오플로우는 이번 ECO-이오파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 중 환경과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활동에 앞장서고,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오플로우는 지속적으로 내외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ESG 경영 방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오파치는 이오플로우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로 지난 4월부터 휴온스의 휴:온 당뇨케어 이오파치물을 통해 국내 유통되고 있다. 이오파치는 당뇨인이 하루 수차례의 인슐린 주사를 맞는 대신 3.5일마다 한번 몸에 부착하는 제품으로 스마트폰 및 ADM(Advanced Diabetes Manager; 전용 컨트롤러)으로 인슐린 주입과 혈당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병력노출을 최소화했다.

또한 이오파치는 클라우드 기반의 당뇨관리 프로그램인 '이오브릿지'와의 자동 연동을 통해 혈당관리 이력을 보호자와 공유할 수 있어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 치료방법이다. 회사는 이오파치 교육센터(www.eopatch.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법 동영상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자료]



이오패치, 그냥 버리지 말고 이오에게 보내주세요!

이오플로우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사용하신 패치를 수거하여 올바른 분리 및 폐기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3분을 선정하여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진행 방식

사용한 이오패치를 보내주시면 개당 500원씩 적립되어 10,000개씩 모일 때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으로 당노인을 위해 기부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사용한 이오패치를 30개씩 모아 착불로 보내주세요.

보내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7층 이오플로우 환경보호팀



캠페인 문의 CS@eoflow.com

[▲사진 캡션] ECO-이오패치 환경보호 캠페인